

부문별 주요 기사

— 대내경제	163
— 농업 및 식량	167
— 대외경제	170
— 남북경협	176

부문별 주요 기사(11.20~12.23)

대내경제	163
평양 지하철 버스에 교통카드 시스템	163
북한 쌀값 이상 폭등	163
북, 강성대국 위해 지방도 한창‘공사중’	163
북 환율, 1주일새 20% 이례적 급락	164
북한 연탄값 급등	164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65
애도 기간, 북한 장마당 폐쇄	165
북, 『노동신문』 통해‘김정은 시대’공식 선언	166
농업 및 식량	167
정부, 유니세프 통해 565만달러 대북 지원	167
11월 북 배급량, 365g으로 늘어	167
WFP 내년 대북지원 예산 8천만달러	168
FAO, 북한 식량부족국으로 재지정	168
FAO,“북한 수개월내 아사자 속출 가능성”	169
대외경제	170
중 연변기업, 북 김책시 철광 개발 나서	170
북, 국제시세 1/5 값으로 중국에 석탄 수출	170
북, 황금평 경제특구법 제정	171
고려항공, 내년 유럽직항 무산	171
북, 금강산특구에 외자기업 첫 승인	171
북한 관광 전문 여행사 웹사이트 오픈	172
중 투먼개발구, 북 노동자 취업 허용	172
북 조기안정 노력, 단등 교역 재개	173
북한의 경제, 식량, 국제 제재 주요 상황	174

남북경협	176
북 화폐개혁 2년, 환율·쌀값 급등에 이중고	176
중국 소재 첫 남북합작 IT회사 도산	176
올 1~11월 남북교역, 전년대비 12.5% 감소	178
정부, 북한에 조의 표명	178
개성공단 상황 빠르게 안정	178

대내경제

평양 지하철·버스에도 교통카드 시스템

북한이 평양 지하철에 이어 버스 등 대중교통 전반에 교통카드 사용 확대. 지하철은 이미 요금정산을 카드로 하여 이용자들이 출입구를 현금 없이 통과하는 체계이며 그 이외의 교통수단도 전망적으로 카드 도입. 한편 「조선신보」에 따르면 최근 평양에서 교통보안원 대신 신호등이 전면적으로 이용. 지난해 하반기부터 평양에 도입된 새로운 신호등 시스템은 사거리 입구의 정지선 60m 전방에 설치된 감지기가 통과차량 대수를 계산, 차량이 많은 도로 쪽에 푸른 신호등이 오랫동안 켜지게 하는 방식.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11.29)

북한 쌀값 이상 폭등

최근 북한의 쌀값이 폭등세. 북한의 물가지수 역할을 하는 쌀값은 통상 추수철이 지나면 떨어지지만 정반대 현상이 벌어짐. 10월 초 1kg에 2,400원 하던 쌀값은 11월 3,850에서 12월 현재 4,200원선. 해산지역은 5,000원대 육박.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례적인 북한의 쌀값 폭등은 북한이 내년 '강성 대국' 진입을 자축할 용도로 쌀을 비축하기 위해 올해 수확한 쌀 방출을 막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북한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내년을 '강성 대국 원년'으로 선포하고 일시적으로나마 배급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 내비치며 배급에 쓸 식량 확보에 총력.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12.1)

북, 강성대국 위해 지방도 한창 '공사중'

북한이 내년 강성대국 진입을 앞두고 평양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도시 재정비,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각종 건설공사가 한창. 평안도, 양강도, 자강도 등 지방에서 대대적으로

주택, 공공건물 등의 신축과 도로 재정비가 한창이며, 최근 평안남도 평성시 보덕동, 구월동 일대에 540여 가구의 5~7층짜리 아파트가 1년 남짓한 기간에 건설. 순천, 북창, 덕천지구를 비롯한 평안남도 내 탄광 지구에는 탄부용 살림집 2,600여 가구가 완공.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양강도 김정숙군, 자강도 만포시 등에서도 수백 가구의 주택이 신축됐으며, 평안북도 남신의주 지구에 350여 가구의 주택이 신축될 예정. 북한은 내년 김일성 생일에 즈음해 희천1호발전소, 김일성 생일에는 희천2호발전소 완공 계획 아래 막바지 공사에 주력.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주로 평양시에 공급 예정. 또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등 청년들을 동원해 백두산선군청년1호·2호 발전소를 건설 중이며, 청천강 계단식발전소(평북), 원산군민발전소(강원도) 건설도 서두름. 이밖에 평북에서는 200km여의 도로 보수, 100km여의 하천제방 보강공사, 양묘장과 2만여 정보의 삼림을 새로 조성. 또한 북한은 강성대국 원년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차원의 국제행사 준비도 한창. 지난 4월 공식 매체를 통해 내년 4월 15일 김 주석 생일에 ‘국제친선모임’ 과 ‘통일지지 세계대회’, ‘주체사상 세계대회’ 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 (「연합뉴스」, 11.29 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12.14)

북 환율, 1주일새 20% 이례적 급락

최근 1천원대까지 폭등했던 중국 위안화에 대한 북한 원화 환율이 1주일 만에 800원으로 급락. 북한 경제여건 상 북한의 원화 가치가 올라갈 요인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런 현상은 이례적.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위안화 대비 북한 돈 환율은 헤산 지역에서 780~800원, 청진 지역에서는 800원대라며 불과 1주일 전까지 위안화 환율이 1천원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갑자기 내렸다고. 또 “1주일 전까지만 해도 함경도 지역에서 북한 위조 지폐가 시장에 대량으로 풀렸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 소문이 상인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전국에 퍼져 외화 수요가 급증했다” 고 덧붙임. 하지만 지금은 그 소문이 유언비어로 밝혀져 천정부지로 올랐던 환율이 거품이 빠지면서 하락하는 추세라고. (연합뉴스, 12.15)

북한 연탄값 급등

북한에서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연탄 값 급등. 중국 단둥에 나온 한 북한 주민은 “올해 다른 물건 값이 오르면서 석탄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며 “구멍 8개짜리 구멍탄(연탄) 한개에 400원 정도이고 구멍이 10개짜리 구멍탄은 600원 가량 한다” 고. 이런 연탄값은 지난

11월보다 30%나 상승한 것으로 월급이 3천원 가량인 북한 도시 근로자가 피울 엄두를 내기 어려운 수준.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한에서 석탄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석탄 대부분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데다 국제시장에서도 석탄가격이 올랐기 때문. RFA는 북한 주민 대부분이 한파에도 비싼 연탄 대신 장마당에서 나무를 사들여 취사 및 난방을 하고 있다고 전함. (「Radio Free Asia」, 12.15)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2월 17일 중증급성 심근경색과 심장쇼크 합병으로 69세를 일기로 사망.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일 동지의 질병과 서거원인에 대한 의학적 결론서’ 제목의 보도를 통해 “겉쌍인 정신육체적 과로로 지난 17일 야전열차 안에서 중증급성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한 심장성 쇼크가 합병됐다”며 “발병 즉시 모든 구급치료 대책을 세웠으나 17일 오전 8시 30분에 서거했다”고 전함. 이어 “18일 진행된 병리해부 검사에서 질병의 진단이 완전히 확정됐다”고 덧붙임. 국제 언론들도 사망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 「워싱턴 포스트」는 김 위원장이 셋째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 승계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망했다고 전함. 「뉴욕 타임스」는 2008년 뇌졸중을 일으킨 후 건강이 악화된 김 위원장이 사망했다고 보도. (「Voice of America」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12.19)

애도 기간, 북한 장마당 폐쇄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공식 발표하기 전날인 18일 새벽 국경지역에 대한 특별경비 지시가 내려 왔으나, 군인들은 김 위원장이 사망한 사실을 공식 발표가 나온 후에야 알았다고 전함. 북한 당국은 또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공식 발표한 19일, 행정기관별로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김 위원장의 애도기간이 끝나는 29일까지 북한 전역의 시장을 폐쇄하기로 함. 한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1일부터 북한 내 상점과 식당, 외국인 투자 카지노 등이 영업을 중단. 홍콩의 엠펜러 그룹도 북한 라선 경제특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5성급 호텔의 카지노 영업을 지난 21일부터 중단했다고. 이 밖에 북한에 체류 중인 중국인 여행객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지침과 해외에 있던 북한 주재원들에 대한 귀국 조치, 북한 주민에게 외출자제령을 내리는 등 주민 통제 강화 움직임도 있음. (「Voice of America」, 12.19 외 「연합뉴스」, 12.23)

북, 『노동신문』 통해 ‘김정은 시대’ 공식 선언

북한 「노동신문」이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이다’ 는 사실을 통해 22일 김정은 체제의 김정일 유훈통치를 공식적으로 밝힘. 신문은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지켜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길을 깨끗이 걸어나가야 한다” 고 밝히며 지도자는 바뀌었어도 통치방식이나 과업은 그대로라는 것을 강조. 유훈통치의 핵심은 선군정치로 사실에 선군영도, 선군혁명, 선군조선 등 ‘선군’ 이 21번 등장. 김정은과 관련한 내용의 첫 언급도 ‘김정은 동지의 선군영도’ . ‘강성국가’ 는 모두 11차례 언급. 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는 내년에 강성대국의 첫걸음을 내딛겠다는 김정일의 의지의 연장. 또 1만1천자가 넘는 장문의 사실을 통해 김정일의 업적을 선전하는 부분과 김정은 체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병렬로 나열하는 등 김정은의 영도를 강조. 이는 1994년 김일성 사망 때 사실 내용의 대부분을 업적 칭송에 할애했던 것과는 다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12.22)

농업 및 식량

정부, 유니세프 통해 565만달러 대북 지원

정부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대북 지원 사업에 565만달러 지원 결정.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천안함 침몰 및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지원 중단 이후 처음.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사업은 지속한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에 따른 것” 이라고 설명. UNICEF 지원프로그램에 따르면, 영유아 및 임산부 약 71만명에 대한 백신 접종 실시와 영양실조 어린이 27만명에 대한 관리 등 취약계층 146만명이 이번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정부가 지난 1996년부터 2009년까지 UNICEF를 통해 지원한 금액은 2,095만달러로 이번 지원금을 포함하면 약 2,660만달러. 정부는 이밖에도 개성공단 응급의료시설 건립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남북협력기금 약 27억원을 무상지원하기로 결정. 또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들의 출퇴근버스 주차장과 자동차검사소 설치에 들어갈 24억원을 ‘연리 1%,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하기로 결정.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지속돼온 ‘유연한 대북정책’ 의 일환으로 풀이. 특히 이번 UNICEF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 경색 이후 처음 재개되는 것이어서 향후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추가 지원이 이뤄질지 여부도 주목. (「연합뉴스」, 12.5)

11월 북 배급량, 365g으로 늘어

북한 당국은 11월에 주민 한 명 당 하루 365g의 식량을 분배.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으며 이같이 전하면서 “주로 강냉이(옥수수)가 배급됐다”고 전함. WFP에 따르면 배급량은 7월부터 9월까지 200g에 머물다가 4개월만인 10월

355g으로 증가. 이어 11월에는 다시 365g으로 증가. 북한 당국은 앞서 WFP에 내년에는 1인당 배급량을 380g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힘. WFP는 북한 당국이 최근 배급량을 늘린 배경으로 가을 추수를 언급했다고. 이런 가운데 WFP가 11월 중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한 양은 전달보다 줌. 11월 한 달 동안 152만 명의 주민들에게 3,957톤의 영양강화식품을 분배. 이는 10월의 6,400톤, 9월의 8,400톤보다 줌. 12월 중에는 3만2,700톤의 곡물이 북한에 도착할 것이라고. WFP는 지난 10월 유럽연합과 호주, 중국, 아일랜드 등의 기부를 받아 올 들어 가장 많은 5만4천톤의 식량을 북한에 들여간 바 있음. 지금까지 WFP의 대북 사업을 위해 걷힌 자금은 내년 3월까지 필요한 2억1천만달러의 31.5%인 6,600만달러로 파악됨. (「Voice of America」, 12.6)

WFP 내년 대북지원 예산 8천만달러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2년 대북지원 사업 예산을 8천만달러로 책정. WFP 내년 대북지원 예산 내역은 긴급식량지원 사업비 약 3,500만달러와 구호사업비 4,300만달러. WFP는 내년 3월까지 벌이는 긴급식량지원 사업을 통해 31만톤의 곡물을 북한주민 224만명에게 공급할 예정. (「Radio Free Asia」, 12.7)

FAO, 북한 식량부족국으로 재지정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곡물 수확량이 늘었음에도 경제난과 농자재 부족으로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다며 외부 지원이 필요한 33개 식량부족 국가에 북한을 또 넣어 식량부족국으로 재지정. 북한의 올해 식량 생산량은 도정 이전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8.5% 증가한 550만톤. 북한은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곡물 26만7,700톤을 수입하고 5만9,500톤을 지원받아 식량 부족분 108만6천톤의 30% 가량인 32만7,200톤 확보. FAO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을 단·중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밀,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종자와 비닐 박막을 지원해야 하고, 북한 당국은 개별 가구의 텃밭농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 (「Voice of America」, 12.8)

FAO, “북한 수개월내 아사자 속출 가능성”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이 올해 작황을 개선에도 만성화된 겨울식량 위기로 수개월 내 아사자들이 속출할 수 있다고 전망. FAO는 ‘아시아 식량현황’ 보고서에서 올해 수확량이 작년보다 8.5% 늘었지만 주민들을 먹여 살릴 식량이 바닥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 이어서 외부 지원이 없으면 수개월 내 식량난 심화로 아사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 식량안보 분석가인 아리프 후세인에 따르면 작황 개선과 무관하게 주민들의 영양실조가 심각한 상태여서 내년에 약 300만명이 외부의 식량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덴마크 비정부기구(NGO)인 ‘미션 이스트’의 피터 드러몬드 스미스 사업국장도 “자체 식량생산으로 약 10개월 간 주민을 먹여 살릴 수 있고 확보된 수입 물량으로도 약 2주간 버틸 수 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사회적 동요까지 일어나면 식량 사정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 (「Radio Free Asia」, 12.22)

대외경제

중 연변기업, 북 김책시 철광 개발 나서

중국 연변 안도현의 진룽철광이 올해 초 북한과 협의를 거쳐 김책시의 철광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미 채광을 위한 장비를 북한에 보냄. 「연변일보」에 따르면 김책시 철광의 매장량이나 연간 생산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북한에 운송한 채광 설비 규모가 6천만위안(107억원)에 달한다고. 지린성 진경제무역유한회사의 자회사인 진룽철광은 2007년 설립됐으며 안도에 총 900여만톤이 매장된 3개의 철광 광산을 보유. 이 기업은 2008년 3월부터 이들 광산에서 연간 10만톤의 철광을 생산해왔으며 2009년 설비를 확충, 생산 능력을 연간 20만톤으로 끌어 올림. 중국의 완상자원유한공사가 51%의 지분을 갖고 북한 혜산동광과 2007년 합자해 설립한 혜중광업합영회사가 지난 9월부터 혜산 구리광산의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는 등 최근 들어 중국 기업들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적극적. 중국은 북한 최대 철광인 무산 광산의 50년 채굴권도 확보. (「연합뉴스」, 11.30)

북, 국제시세 1/5 값으로 중국에 석탄 수출

북한이 최근 외화난이 심각해지면서 부족한 외화 확보를 위해 중국에 석탄 등 광물자원을 헐값에 팔고 있음.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중국을 상대로 석탄을 아주 싸게는 국제시세의 5분의 1가격에서 2분의 1가격으로 몰량 밀어내기식 수출을 하고 있다”고 전함. 또 금의 경우는 국제시세의 70% 수준에서 수출이 이뤄진다고. 또 최근 북한의 외화난이 심해지고 코앞에 닥친 내년 강성대국의 해를 준비하기 위해 외화 수요가 커지면서 수출을 담당하는 북한 기관들이 당국으로부터 할당 받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덤핑 수출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 특히 헐값 수출이 유난히 심한 석탄은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북한의 대중 총 수출규모는 20억4,300만달러. 석탄은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억4천만달러를 차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남. 소식통은 또 북한이 중국

에는 질 좋은 석탄을 수출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필요한 석탄은 중국에서 가장 질이 나쁜 것을 들여 오는 바람에 이를 연료로 한 발전소의 기계 고장이나 매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임. (「Radio Free Asia」, 12.2)

북, 황금평 경제특구법 제정

북한이 최근 북중 경제특구인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법을 제정.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이 채택되었다”고 밝혔지만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 안함. 이 특구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 6월 북중 공동개발 착공식 이후 지지부진했던 특구 개발이 본격화될 듯. 북한은 효율적인 외자 유치 조달방안과 구체적인 세무절차 등을 담은 새로운 경제특구법 초안을 만들어 중국의 정관계, 경제계 인사에게 법안을 회람한 것으로 알려짐. 특히 이 법안은 주요내용은 선전 등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특구에 적용해 큰 성공을 거둔 법들과 대동소이. 또 「조선중앙통신」은 나선 경제무역지대법이 수정 보충됐다고 밝혔지만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개정됐는지는 소개하지 않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12.8)

고려항공, 내년 유럽직항 무산

소련 붕괴 이후 처음 재개될 뻔했던 북~유럽 직항노선 개설 계획이 고려항공과 베를린공항 간의 이견으로 무산. 스웨덴의 북한전문 여행사 ‘코리아 콘솔트’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이 항공시간과 금전적 문제로 인해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 안함. 고려항공은 김일성 생일 100주년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평양~베를린 직항노선을 운행할 계획이었음. (「Radio Free Asia」, 12.12)

북, 금강산특구에 외자기업 첫 승인

대북 소식통은 “홍콩과 조선족 자본이 투자한 외국기업인 조선 금강산금라선박 관광유한회사가 북한의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 이 기업은 크루즈 선박 운영을 통해 홍콩 및 중국 동부 항구에서 관광객을 싣고 금강산 특구에서 카지노, 면세점, 호텔 영업을 할 것이라고. 크루즈 선박은 600명과 1천명, 1,800명 규모의 3

척을 운영할 예정이며 관광이 활성화되면 러시아 지역도 취향할 계획. 이 기업은 홍콩 자본 80만달러(약 9억1,700만원), 조선족 자본 20만달러를 각각 출자해 100만달러의 등록 자본금 신고. 2026년 12월 말까지 경영 허가를 받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소를 개소할 것으로 보임. 이 승인은 북한 당국이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무시한 채 발효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처음으로 승인한 외자기업이라는 점에서 논란 예상. 사업 분야도 현대아산과 유사. 북한은 현대아산이 기존에 사업을 벌였던 곳을 포함한 금강산 지역 60km²를 국제관광지 겸 비즈니스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1단계 계획 추진 중. 이 계획은 60km²에 대해 인프라, 에너지, 전력 등 기초시설 건설투자는 특구관리위원회가 주도하고 기타 관광시설, 비즈니스 프로젝트투자는 희망하는 국가별로 구역을 나눠 자체 개발을 유도한다는 게 골자. 기본적으로 무관세를 원칙으로 하되 각국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영업세 부과. (「연합뉴스」, 12.13)

북한 관광 전문 여행사 웹사이트 오픈

저렴한 여행 비용을 앞세운 북한 전문 온라인 여행사가 11월 22일 설립된 것으로 파악. ‘주체여행사’ 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웹사이트(www.juchetravelservices.com)를 통해 북한 국영관광회사인 조선국제여행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난달 22일부터 영업을 시작. 이 여행사는 오프라인 여행사보다 비용이 저렴한 것이 장점이며 1인당 여행가격이 4박5일 기준 805유로(약 121만원), 7박8일 1,075유로(약 162만원), 14박15일 2,020유로(약 304만원)라고 설명. 또 북한 고려항공과 제휴해 내년 5월 실시되는 ‘항공 애호가 관광’은 여객기를 타고 평양과 백두산, 함흥, 금강산, 개성과 비무장지대 등을 여행하며 승무원들과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상품. 이밖에 묘향산, 남포, 구월산, 원산, 함흥, 칠보산 등에 대한 소개도. 이 여행사는 영국 런던과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북한 당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선국제여행사 베이징 사무소와 직접적 관계에 있다” 고만 밝힘. (「조선일보」, 12.18)

중 투먼개발구, 북 노동자 취업 허용

「연합뉴스」는 22일 중국 지린성 투먼시 공산당위원회 류보 선전과장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투먼경제개발구 안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기업공업원구를 따로 조성했다고 보도. 외부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주로 고용한다는 의미에서 ‘북한공업단지’라는 별칭

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기업공업원구라고 설명하면서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취업을 허용할 것이라고. 그동안 투먼개발구가 북한 노동자들의 취업을 허용할 것이라는 소문은 작년 하반기 이후 일부 나왔지만 중국 정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 투먼개발구는 1992년 지린성의 비준을 얻은 후 지지부진하다 지난 8월 20만㎡ 부지에서 공식 착공식을 가졌으며 현재 본부 건물 1동이 완공됐고 공장건물 3개동의 건설이 진행. 향후 10년 뒤 공업생산 규모 300억위안, 개발구 내 인구 25만명이 목표. 한편 소식통들에 따르면 투먼시 경제개발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북중 합자회사인 연변금추전자과학기술유한회사는 북한 무역성, 함경북도 해운구락부, 선봉무역회사 등과 북한 근로자의 파견 근무를 위한 노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 류 과장은 또 투먼개발구에는 한국의 해인전자도 입주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덧붙임. 이에 앞서 투먼시는 지난해 10월 양국 접경지역 주민들이 통행증만으로 자유롭게 출입하며 무관세 교역을 할 수 있는 호시무역 시장도 개설. 투먼 해관 부근에 마련된 이 시장을 이용하는 양국 주민들은 1인당 8천위안 이하의 상품 판매 관세가 면제. (「연합뉴스」, 12.22)

북 조기안정 노력, 단둥 교역 재개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은 김 위원장 사망 발표 후 한때 중단됐던 단둥·신의주 간 교역이 22일부터 전면 재개되는 등 빠르게 정상 회복. 북한 당국은 내부 혼란을 조기에 수습, 사회 안정을 꾀하는 데 주력. 22일 오전 물품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들이 잇달아 단둥 해관에서 북한 입국 수속을 마친 뒤 압록강 철교를 넘어 신의주로 들어감. 21일 오후에도 북한이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50여 대의 건설용 신형 트럭들이 줄을 지어 단둥 해관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감. 단둥의 한 무역상은 “해마다 12월부터 북한의 신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이듬해 2월까지의 북중 교역의 비수기”라며 “(현재) 교역량이 이달 초보다 줄긴 했지만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만큼 교역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전함. 북한 당국은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무역상들에게도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지시. 단둥의 한 대북 무역상에 따르면 북한 파트너가 “상부로부터 ‘동요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조문을 위해 귀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북중 무역도 곧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 지난 21일 오후 4시 23분 단둥 도착 예정이던 평양발 베이징행 국제열차도 1시간가량 연착되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운행. 승객들은 대부분 중국인이었지만 일부 북한 사람들도 탑승. 이날 열차를 통해 단둥에 도착한 중국인들에 따르면 주민들은 슬픔에

서 벗어나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중국인 대북 무역상도 “공황 상태에 빠져 사회 전체가 마비됐던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며 “북한 당국이 조기 안정을 위해 애쓴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함. (「연합뉴스」, 12.22)

북한의 경제, 식량, 국제 제재 주요 상황

▶ 북한 경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은 2010년에 마이너스 0.5% 성장 추정. 2009년의 마이너스 0.9% 성장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또한, 2006년과 2007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어, 최근 5년 간 2008년을 제외하고는 4년간 마이너스 성장 기록. 한은은 북한경제의 근간인 농림어업과 경공업의 부진을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봄. 쌀값은 화폐개혁 직후인 2009년 12월 1kg 당 20원~40원에서 11월 현재 3천원 안팎으로 급등. 환율도 달러당 35원에서 3,800원까지 치솟음.

▶ 북한 식량

유엔의 ‘북한 작황과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66%가 끼니를 거르고 있으며, 조사 가구 중 3분의 2는 일주일에 최소 한 끼를 걸렸고, 절반 이상은 매 끼니 식사량 줄임. 북한 주민들은 식량난에 대처해 올해도 나물, 도토리, 잣, 버섯, 미역 같은 야생식품을 자주 섭취. 유엔은 특히 식량난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리는 영아와 유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 지난 10월 북한을 방문한 발레리 아모스 유엔 인도 지원 사무차장은 지난 몇 년 간 북한의 식량 생산이 수요보다 1백만톤 가량 부족했던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 최근 국제사회의 원조가 대폭 축소되며 북한 식량난은 더욱 악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이 대폭 축소돼 정부가 매년 지원하던 쌀 40~50만톤이 끊긴 지 3년. 1996년부터 2,020만톤의 식량을 지원한 미국도 분배 감시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로 지원 중단. 다른 나라들도 대북 식량 지원을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계식량계획(WFP)은 자금 모금이 되지 않아 대북 사업을 대폭 축소.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부 원조를 받지 않고는 당면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

▶ 대북 제재

유엔은 2005년과 2009년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채택. 특히 1874호는 소형 무기를 제외하고 모든 무기와 관련한 북한의 대외

수출을 금지, 무기 거래하는 북한 화물선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함. 또 무기 개발과 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등 북한의 돈줄 차단에 초점. 이밖에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고립은 점점 더 심화. 특히 정부는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 북한은 최근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잠정중단과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재입국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대신 미국은 조만간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 (「Voice of America」, 12.19 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12.19)

남북경협

북 화폐개혁 2년, 환율·쌀값 급등에 이종고

통일부는 2주년을 맞은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 물가와 환율 급등 등의 부작용으로 실패했다고 평가. 북한이 2009년 11월 30일 17년 만에 화폐개혁을 단행한 직후, 쌀값은 같은해 12월 1kg당 20~40원에서 2011년 11월 현재 3천원 안팎으로 급등. 「테일리NK」가 평양, 신의주, 혜산 지역의 쌀값 동향을 2009년 여름부터 추적한 자료에 따르면 세 지역의 쌀값은 2009년 하반기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12월 말부터 요동치기 시작. 2010년 9~11월, 올해 2~4월 잠시 하락 추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거의 2년 내내 쌀값은 폭등세를 보였고, 혜산 지역의 경우 10여일 만에 최고 1천원(2011년 1월)이 오른 적도. 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물가상승 기대심리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다는 평가. 달러당 북한 원화의 환율도 2009년 12월 35원에서 11월 현재 화폐개혁 이전 수준인 3,800원까지 치솟음. 쌀값 폭등은 북한화폐 가치의 하락에 따른 환율상승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 환율이 상승하면 국제시장에서 수입해올 수 있는 곡물의 양이 그만큼 줄기 때문. RFA 역시 지난달 29일 중국을 오가는 평양 주민들의 말을 인용해 같은달 25일 평양과 신의주 장마당의 100달러당 환율이 각각 42만5천원과 42만원까지 올랐다고 전함. 통일부는 북한이 화폐개혁과 시장통제로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부유층을 견제하는 데는 일정한 효과를 거뒀지만, 시장통제는 오히려 무력화됐다고 분석.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12.1)

중국 소재 첫 남북합작 IT회사 도산

남북한의 첫 IT 합작회사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하나프로그램센타’가 경영난으로 도산한 것으로 추정. 이 회사는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하나(HANA)로 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이듬해 단둥개발구에

설립. 현지의 복수 소식통은 이 회사가 일감 부족에 따른 경영 악화로 사무실 집기 일체를 철수했고, 컴퓨터 등 집기들이 컨테이너 차량에 실린 것으로 미뤄볼 때 완전철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해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다” 고. 지난 2001년 4월 한국의 IT기업을 대표한 (주)하나비즈와 북한 평양정보센터(PIC)가 자본금 200만달러를 6대 4 비율로 출자한 이 회사의 대표는 재미동포 실업가인 금강산국제그룹 박경운 회장. 하나비즈 닷컴이 소프트웨어 패키지나 용역을 수주해 의뢰하면 이 회사는 평양정보센터와 연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음. (「Radio Free Asia」, 12.7 외 「연합뉴스」, 12.8)

러시아, “북한 경유 가스관 공사비 부담”

남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3국 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티모닌 특명대사는 지난달 29일 러시아 유력 일간지인 ‘코메르산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국영가스회사인 ‘가즈프롬’이 700km에 이르는 북한 내 가스관 건설에 따른 비용을 전부 부담할 것이라고 밝힘. 가즈프롬은 가스관 건설에 필요한 기술적 자원을 갖고 있으며, 가스관 건설과 이후 운용 과정에 북한 노동력을 끌어들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러시아가 가스관 건설 비용 부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전문가들은 가스관 건설 공사에 약 30억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 그 동안 남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북한 가스관 건설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건설 비용 부담에 관한 언급은 없었음. 한국과 러시아는 2013년에 공사에 착공해 2017년부터 가스를 공급하기로 지난 9월 잠정적으로 합의. 201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스공급을 시작할 계획. 하지만, 가스관 건설과 관련해 아직도 해결돼야 할 중요한 현안들로는 먼저, 한국과 러시아가 가스공급과 구매에 대한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한국과 러시아는 내년 초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스 가격과 공급량과 공급기간 등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 또한, 북한에 건설되는 가스관이 비무장지대를 거쳐 한국으로 연결되는 만큼, 4km에 이르는 비무장지대 어느 지점을 분기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남북 간에 합의 필요. 티모닌 대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남북한이 조만간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 뒤 가즈프롬이 참여한 가운데 비무장지대에서의 공동작업 규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함. (「Voice of America」, 12.2)

올 1~11월 남북교역, 전년대비 12.5% 감소

관세청의 남북교역 통계에 따르면, 11월까지 남북교역액은 15억4천만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5% 감소.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낸 반출액은 7억2천만달러로 지난해 보다 10% 줄었고, 반입액도 8억2천만달러로 1년 전 보다 15% 감소.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을 금지했기 때문으로 풀이. 실제로 5·24 조치에서 제외된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역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11월까지 교역액이 15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보다 2억달러 이상 증가. 반면 지난해 11월까지 4억6천만달러에 달했던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은 6백만달러 이하에 불과. (「Voice of America」, 12.15)

정부, 북한에 조의 표명

정부는 지난 17일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28시간 만에 조의(弔意)를 표명했으나 정부차원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결정. 한편, 동북아시아 5개국이 각기 조의를 표명.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가장 먼저 조의 표명. 러시아도 사망 발표 당일인 19일에 드리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명의의 조전을 김정은에게 보냄. 러시아는 이 조전에서 김정은에 대해 ‘김정은 각하’로 표현. 반면 한미일 3국은 직접적인 조의 표명보다는 북한 주민에 ‘위로를 전하는’ 수준의 간접적 조의만 표명. 정부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읽은 담화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힘. 또한 “정부차원의 조문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임.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단체의 조전 발송을 허락하고 이희호 여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故김대중 전 대통령과 故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가족들에 대해서 만큼은 특별히 방북 조문을 허용키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12.20)

개성공단 상황 빠르게 안정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진지 3일째인 21일, 배해동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 현장의 분위기가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고 전함. 처음에는 남북측 근로자들이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현재는 많이 차분해진 상황이고, 예상보다 침착한 모습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 공단 조업일정과 관련해서는 영결식·추모대회가 열

리는 28~29일에는 북측 근로자들이 휴업할 예정이며 그전까지는 정상 근무가 이어진다고 하며 북측 종업원 대표와 수시로 협의하며 서로에게 가장 안정적인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전함. 개성공단엔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임. 현재 개성공단에는 남한 기업이 123개 입주해 있으며 770명의 남측 근로자가 4만8천여명의 북측 근로자와 함께 근무. (「연합뉴스」, 12.21)

자료정리 : 나미나